수미단에 담긴 불교적 상상력과 포용력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⑯ 팔공산에 사는 물고기, 화상어(和尙魚)


은해사 백흥암 수미단 상단부 화상어.


은해사 백흥암 수미단 하단부 화상어.

중국 명나라 백과사전 〈해어〉에 첫 기록
인두구신 형상, 〈삼재도회〉서 명칭 등장
일본서는 바다의 괴물 '해방주'로 오인돼
영천 은해사 백흥암 수미단서 2종 확인


삼재도회 도설 화상어(중국 명대 1609년경).

대구·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명산은 역시 팔공산(八公山)이다. 예로부터 팔공산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믿음이 전한다. 이에 신라는 팔공산을 오악(五岳)의 중심인 중악(中岳)으로 채택했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렸다.

이와 함께 팔공산 지역은 경상도와 충청도, 강원도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잦은 쟁탈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고려의 왕건(王建)이 후백제의 견훤(甄萱)에게 무참히 패한 팔공산 전투는 이를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일화일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이야기가 서린 팔공산 곳곳에는 일찍부터 수많은 사찰과 불교 신앙이 자리 잡았다. 동화사(桐華寺)와 은해사(銀海寺) 같은 큼직한 대찰들이 팔공산에 터를 마련한 것부터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기도 성지로 각광받는 관봉석조여래좌상(冠峰石造如來坐像), 우리나라 최초의 석굴사원인 군위삼존석굴(軍威三尊石窟)에 이르기까지, 당시 이 일대의 불교 신앙이 얼마나 높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에 더해 오직 팔공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바로 '화상어(和尙魚)'라는 상상 속 동물이다. 중국 명나라 백과사전에 처음 기록된 화상어는 동해 먼바다에 산다고 전해지는 상상 속 물고기다.

그렇다면 화상어는 어떤 이미지와 상징을 지니고 있으며 불교미술에 표현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다의 스님

화상어는 말 그대로 스님을 뜻하는 화상(和尙)과 물고기를 뜻하는 어(魚) 자의 합성어다. 그렇다면 그 생김새는 어떠하며 언제부터 등장한 것일까? 가장 이른 기록은 중국 명나라 학자인 황충(黃衷)의 〈해어(海語)〉로 알려져 있다. '바다의 언어'라는 뜻을 지닌 〈해어〉는 당시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수록된 백과사전이다.

여기서 화상어로 추정되는 생물은 '물괴(物怪)' 편에 등장하는 '해화상(海和尙)'이다. '물괴' 편의 해화상은 "사람 머리에 자라의 몸을 지녔으며, 발은 길지만 껍질은 없다"고 기록돼 있다. 사람 머리에 자라 혹은 거북 몸을 지닌 일명 '인두구신(人頭龜身)'이라는 것인데 이와 같은 모습은 전편에 살펴본 인어에게도 찾아보지 못한 독특한 형상이다.

이후, 화상어라는 공식 명칭은 1609년 중국 명대 학자 왕기(王圻)가 편찬한 백과사전인 〈삼재도회(三才圖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삼재도회〉에는 "동쪽 큰 바다에 사는 화상어는 용모가 자라와 같고 빛깔은 붉으며, 조수(潮水)를 따라온다"는 설명과 함께 민머리에 거북 몸통을 지닌 이미지로 등장한다. 여기서 화상이라는 명칭은 아마도 민머리로 표현된 사람 머리가 스님을 연상시키는 것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본이 바라본 화상어 인식

일본에도 화상어가 있을까? 물론이다. 앞서 살펴본 〈삼재도회〉는 에도시대 무렵 일본으로 전해졌는데 1715년경 의사였던 데라시마 료안(寺島良安)이 자국 문화에 맞춰 재구성한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라는 백과사전을 편찬했다. 여기에 수록된 화상어 이미지와 기록을 찾아보면 앞서 살펴본 〈삼재도회〉와 거의 똑같지만 '해방주(海坊主)'라는 생소한 단어가 등장한다. 아마도 당시 일본인들이 화상어에게 붙인 별명인 것 같은데 과연 해방주란 무엇일까?

'우미보즈(うみぼうず)'라고도 불리는 해방주는 일본 문화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이다. 그 이미지는 물고기 머리에 사람 몸을 지닌 형태로도 등장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사례는 그림자를 연상케 하는 검은 모습에 민머리를 지닌 거인의 형상이다. 예로부터 배를 침몰시키고 어민들을 괴롭힌다고 알려진 해방주는 섬나라인 일본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당시 〈삼재도회〉를 분석한 데라시마 료안의 시선에서 화상어는 생소하고도 괴이한 이미지였을 것이고, 민머리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는 점 때문에 화상어를 자국의 바다 괴물과 연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괴의 나라 일본, 그 속에서 화상어는 민머리라는 이미지 때문에 바다 괴물로 오인되는 슬픈 일을 겪게 된다.

불교미술에서 다시 태어난 화상어

조선에도 〈화한삼재도회〉는 전해지게 됐고, 당시 왕실부터 실학자, 불교계까지 다양한 계층에 유통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불교와 무관한 상상 속 동물인 화상어가 조선 후기 불교미술로 재탄생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영천 은해사 백흥암(百興庵) 극락전 수미단이 대표적인 사례다. 17세기 제작된 백흥암 극락전 수미단은 화려하고 섬세한 장엄 문양과 함께 응룡(應龍), 마갈어(摩竭魚), 인어 등 여러 종류의 상상 속 동물들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화상어는 측면 위아래로 총 두 마리가 확인된다. 먼저 아래쪽 화상어는 붉은 바지만을 입은 반라에 흰 점을 찍어 처리한 귀갑이 달린 동자의 모습이다. 두 발로 선 화상어 손에는 화염 줄기가 달린 보주(寶珠)를 들고 있는데 혹여 보주가 떨어질세라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받친 뒤 위를 향하고 있다. 이는 다른 불교 도상에도 확인되는 사례로 보주를 불·보살에게 바치는 전형적인 공양도상(供養圖像)이다. 부처님에게 바칠 보주를 소중히 다루는 귀여운 행동인 것이다.

아래쪽 화상어가 귀여운 매력을 지녔다면 위쪽 화상어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우선 사람 얼굴에 거북 몸을 지닌 것은 동일하다. 그렇지만 두 발로 선 아래쪽 화상어와는 달리 네발로 기고 있어 짐승에 더욱 가깝다. 꼿꼿이 선 네 다리 주변에는 화염 갈기가, 세 발가락에는 날카로운 발톱까지 달려 있어 마치 괴수 같은 느낌도 든다. 위쪽 화상어의 또 다른 특징은 얼굴 표현을 들 수 있다. 할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어르신 얼굴을 한 머리에는 붉은 바탕에 술과 깃털이 달린 투구를 쓰고 있는 것이 정말로 독특하다.

그렇다면 화상어가 쓴 깃털 장식 투구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정답은 조선 후기 불교회화에서 찾을 수 있다. 불교회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존상 가운데 사천왕(四天王)과 팔부중(八部衆) 등 부처님을 지키고 깨달음을 구하는 신중(神衆)들이 쓴 투구가 바로 화상어가 쓴 깃털 장식 투구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불교와 무관한 상상 속 동물인 화상어에게 불교 고유의 미술적 요소를 접목한 승려 장인들의 아이디어라, 정말이지 기발한 창의력이 엿보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화상어가 조선 후기 불교미술에 표현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위에서 살펴본 사전류를 참고한 당시 승려 장인들의 아이디어일 것이다. 수미단이 상징하는 불국토에는 다양한 존재들이 노닐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칫 낯설 수도 있는 화상어라는 존재를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 불교 요소들을 차용해 대중에게 친숙함과 길상의 효과까지 전하고자 했다. 이러한 참신한 의도뿐 아니라 불교계의 포용력과 자비심까지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선 후기 불교미술의 화상어인 것이다.

마치며

중국 명나라 백과사전에 처음 등장한 화상어는 중국문화 속에서 그다지 비중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런 화상어가 일본으로 건너가 처음 받은 시선은 긍정적인 시선이 아닌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괴물이라는 슬픈 오해였다. 이랬던 화상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례가 조선 후기 불교미술이다. 당시 불교의 자비와 포용을 그대로 실천했던 승려 장인들의 따뜻한 손길에서 수미단을 마음껏 노니는 존재로 화생한 것이다.

현재까지 화상어가 확인된 불교미술의 사례가 국내에서는 팔공산 지역뿐이긴 하다. 다소 아쉬운 일이긴 하나 이 또한 그들만의 고유한 보금자리일 것이니, 무더위가 누그러질 때쯤 화상어를 만나러 팔공산을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



김용덕 작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전화상담시 전문지도
신기어린 소리! 성우같은 소리! 가창력 향상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전화하시면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 부근을 지날때 본사 유선 마이크로 소리 비교만 해 드린 후 신속히 사라짐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 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본 제품은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